

「송국리형취락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토론문

고 민 정
경남발전연구원

발표문은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인간집단)의 대표적인 송국리형취락의 모습을 통해 본 생산과 소비에 관한 내용이다. 머리말에 언급하였듯이 그동안 생산과 소비에 관한 연구는 자료의 부족과 해석에 대한 한계로 어떤 특정유적이나 지역 문화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분배, 소비의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 취락, 지역수준의 범위에서 유구와 유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 주거내의 생산과 소비, 취락 내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주거지 내부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별 주거지내의 생산과 소비형태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동기시대 생산과 소비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기대된다. 토론자는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생산과 소비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여 심도 깊게 연구성과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토론문은 발표자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송국리형주거지 내 생산에 관한 것이다. 송국리형주거지 내부의 타원형구덩이는 석기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모든 타원형구덩이를 석기생산과 관련된 절대요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다면 취락 내에서 타원형구덩이의 출토양상을 통해 석기생산 관련 주거지와 그렇지 않은 주거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취락 내 생산공간과 더불어 석기 생산 및 소비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취락 내에서 이러한 양상이 확인된 예가 있는지 알고 싶다.

두 번째 질문은 송국리형주거지와 소비에 관한 것으로 이는 소비의 범위를 주거지 내로

한정한 것이다. 노지로 변용된 타원형구덩이와 주거면의 소토부는 모두 화기를 이용한 소비 영역으로 추정하고, 저장공은 소비를 위한 저장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청동기시대 후기 송국리형주거지의 내부구조 중 노지로 변용된 타원형구덩이나 주거면의 소토부가 확인된 주거지는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이를 송국리형주거지 내의 소비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발표문에 취락 내 소비 공간으로 야외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송국리형주거지로 구성된 취락에서는 주로 야외노지가 공동의 조리 및 공동생활공간으로 기능하였으므로 취락 내 공동 소비의 형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세 번째 질문은 송국리형취락과 토기생산에 관한 것이다. 청동기시대 후기의 토기생산 관련자료는 여러 유적에서 토기 가마가 확인되고, 관창리B유적이나 대평리유적 옥방9지구와 같이 토기생산 전용공간이 존재한다. 토론자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토기 생산체계에 대해서 가내제작(Household production)의 형태와 가내공작(Household industry)의 형태(이성주 譯(Carla M. Sinopoli(1991) 著) 2008)가 공존하였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가내제작(Household production)은 개별 가족 안에서 소비하기 위한 소규모의 토기생산체계이고, 좀더 발전된 형태의 가내공작(Household industry)은 한 가족 수준의 토기 제작이지만 소비의 범위는 한 가족의 수준을 넘어서 교환하거나 내다 팔기위한 토기 생산체계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전업적 전문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공방을 갖춘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고민정 2011), 송국리형취락 내에서 토기 생산형태 및 토기 제작집단의 성격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네 번째 질문은 송국리형취락과 석기생산에 관한 것이다. 발표자는 대부분의 송국리형주거지에서 석기를 제작해서 공급한다면 이에 대응될 수 있는 수요처는 어디인가? 또한 석기 제작과 농사에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석기의 공급처는 두 번째 질문과도 연결되는 것인데, 취락 내 석기제작 주거지와 비제작 주거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석기를 제작한 흔적이 있다면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대개 한 가족 수준의 소비 범위에서 석기를 제작했던 것인가? 한편, 발표자는 대평리유적의 예로 볼 때, 석기 뿐만 아니라 옥장신구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과 분업 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는 대규모의 경작지를 바탕으로 한 농경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반농반공의 형태로 도구 생산과 농경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적색마연토기, 마제석검, 옥장신구와 같은 특정유물에 대해서는 반전업적 전문적인 공인에 의해 생산되어 인근 지역으로의 분배가 이루어진 가내

공작(Household industry) 생산체계를 갖추었다고 추론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다섯 번째 질문은 송국리형취락의 구성원-인구-에 관한 것이다. 청동기시대 생산체계와 소비의 변천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의 범위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가구는 보통 ‘함께 거주하는 경제공동체’ 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공동체와 지역 단위에서 생산과 사회 발전을 편성해가는 핵심요소로 볼 수 있다. 발표자도 취락의 구성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이며, 송국리형주거는 대부분 10여동 내외의 주거로 구성된 사례가 많고 대략 50여명 내외(한 가구당 4~5명 정도)의 구성원이 존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관창리취락이나 대평리취락 등을 보더라도 다수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동시성 문제를 고려하여 대략 40~50여동 이상이 취락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취락 구성원은 200~250명 이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문에 제시한 바에 따르면, 취락 구성원이 150~200명 이상일 경우 단일 집단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내적 위계가 형성되거나 집단의 분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이라면 송국리유형 문화단계에도 계층화 사회로 가는 여러 양상들이 취락 내에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여섯 번째 질문은 취락 내 소비에 관한 것이다. 발표자는 송국리형취락은 가족분화가 활성화되어 소집단 체제가 발달하고 분업화와 교환체계 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았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잉여생산물이 발생하게 되고 부의 축적도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취락 내 소비의 범위(공간?)로서 야외노지와 공터(광장)를 제시하고, 야외노지의 개별주거와의 배치나 야외노지군의 배치형태를 통해서 소비단위와 성격을 파악하였다. 야외노지와 공터(광장)라는 소비의 범위(공간)는 주로 식생활이나 공공의 의례활동 등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석기나 토기와 같은 수공업품 생산물에 대한 취락내 구성원들 간의 소비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일곱 번째 질문은 취락 간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문제이다. 청동기시대 취락은 후기 전반에 제사장과 같은 우월한 특정개인이 일정 구역에 독립하여 거주하는 구조에서 후기 후반에는 분업적 취락으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관창리취락은 분업적 취락의 복합형이며, 오석리취락은 제의집단, 대흥리취락은 저장성이 강한 집단, 원북리취락은 경작집단으로 모델화하고 있는데(안재호 2006: 160-163), 이러한 분업적 취락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취락간의 생산과 소비의 형태는 어떠했는지? 영남지역에서는 적색마연토기의 분포를 통해 취락간의 분배나 교류의 흔적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대평리취락에서는 부장용 외에 일상용 적색마연토기도 다수 제작되어 토기생산의 중심지로 이해되고, 주변 취락과

의 분배나 교류의 흔적 등이 확인된다. 또한 특정기형의 적색마연토기 장경호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주변지역에서 한 두 점 확인되는 예,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적색마연토기 단경호가 의령지역이나 청도 화리유적에서 출토된 예는 분배나 교류의 흔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혹시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이처럼 취락간의 분배나 교류의 흔적이 확인된 예가 있는지? 또한 그러한 분배나 교류의 흔적이 있다면 취락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참고문헌

- 고민정 & Bale, Martin T., 2008, 「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 생산과 사회 분화」 『한국청동기학보』 2, 한국청동기학회.
- 고민정, 2011, 「청동기시대 후기 무문토기 생산체계」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30주년 기념 고고학 논총』.
- 安在晧,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주 譯(Carla M. Sinopoli(1991) 著), 2008, 『토기연구법』, 경남고고학연구소 번역총서1, 考古.